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1.25)

1. 지소미아 종료 효력의 조건부 중지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관련, 트위터에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은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정한 것”이라는 반론 글을 게재¹⁾
- 정 실장은 22일 경제산업성이 “한국이 수출관리체제의 개선을 위한 의욕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통상부처간 대화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경제산업성은 24일 밤 공식 트위터에 “(일본 정부의 발표)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입니다”라는 코멘트를 두고함.
- 카지야마(梶山) 경제산업성 장관은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 실장의 브리핑과 관련,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정부 간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발언²⁾
- 스가(菅)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 “협정의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하며, 한국 정부와 계속 의사소통을 할 생각이다”고 발언³⁾
- 관방장관은 만일 한국 측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생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지소미아의 일방적 종료 통보를 인정하지 않는 뜻인지에 대한 질문에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함.

1) 「経済産業省「事前にすり合わせた」 韓国主張に反論」 『NHK NEWS WEB』 (2019. 11. 25).

2) 「日韓貿易管理 梶山経産相「政策対話の再開方針に影響はない」」 『NHK NEWS WEB』 (2019. 11. 25).

3) 「官房長官「韓国側の発信一つ一つにコメント 生産的でない」」 『NHK NEWS WEB』 (2019. 11. 25). 및 수
상관저 홈페이지 기자회견 참고. 首相官邸, 「令和元年11月25日(月)午前」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tyoukanpress/201911/25_a.html
(검색일 : 2019. 11. 25).

□ [일본 언론 동향]

- 아사히(朝日) 신문은 관방장관 등이 “일본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반박하여 말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 내에서도 “그럼 왜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인가? 서로 불신만 깊어질 뿐인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⁴⁾
-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와 관련하여, ‘동북 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일단 피할 수 있었지만, 한미일 간 신뢰관계에 남긴 상처는 적지 않다고도 논평
- 미국은 한미일 협력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항할 생각이었으며, 지소미아는 미국이 희망하는 협력체제의 유일한 상징이었는데, 한국 측이 8월에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서 한일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큰 마찰이 발생했다고 평가

4) 「日韓GSOMIA維持 危機免れたが、日米韓に禍根」 『朝日新聞』 (2019. 11. 25).